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사불산 중턱에 위치한 윤필암은 예로부터 고승들이 머물며 수행했던 곳으로 유명한 도량이다. 지금은 조계종 제8교구 직지사의 말사인 대승사의 산내 암자로서, 수덕사 견성암 오대산 지장암과 더불어 3대 비구니 선원의 하나로 비구니 선맥을 잇고 있다.

17인의 화가들이 윤필암과 맺은 각각의 인연을 조형(造形)과 재현(再現)의 시각 이미지로 담아낸 '사불산 윤필암-꽃보다 아름다운 스님들의 도량전'이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인사동 학고재에서 열린다.

◇윤필암 스님들과 경내에 함께 선 17인의 작가들.

'사불산 윤필암-꽃보다 아름다운 스님들의 도량전'

화가 17인 윤필암과 그림 인연

인사동 학고재, 6월1~14일

이번 전시는 한국 화단의 중견인 최경한(서울여대 명예교수), 송영방(동국대 예술대학장), 이만익(서양화가), 오경환(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장), 조승환(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 임옥상(임옥상 미술연구소 소장), 황인기(성균관대 교수), 서용선(서울대 교수), 김태호(서울여대 교수), 오원배(동국대 교수), 곽남신(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상록(계원조형예술대 겸임교수), 정현(조각가), 김재광(계원조형예술대 교수), 오병욱(동국대 교수), 이상봉(성균관대 교수) 등 17인의 작가가 10년 전부터 윤필암을 답사하며 쌓아놓은 인연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작가 자신들의 관점에서 해석한 윤필암이 한국화, 서양화는 물론, 추상과 판화, 조각과 설치미술, 사진의 장르를 넘나들며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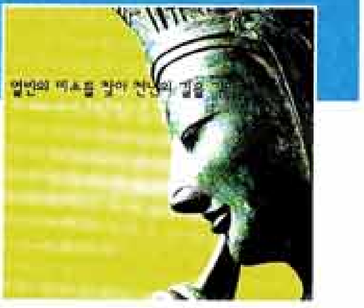
송영방교수는 6세기 경 붉은 비단에 싸인 채 하늘에서 떨어져 지금까지 사불산의 산마루에 남아있다는 사면석불상(四面石佛像)의 이야기를 화폭에 옮겨 놓았다. 서양화가 이만익씨는 봄 꽃 핀 나무 아래서 단소를 불며 한가로이 삼매에 빠진 수행승의 모습을 유화의 화려한 색감으로, 조각가 정현씨는 고뇌에 빠진 수행자의 모습을 선과 면이 절제된 목조각으로 표현했다. 또 김재광교수는 흑백사진을 통해 적막한 선방의 느낌을 그대로 전해준다.

17명의 작가들은 이번 전시를 위해 지난 4월 13일 함께 윤필암을 찾아 몸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느껴온 윤필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저마다의 인연보따리를 풀어놓은 시간도 가졌다. 전시와 더불어 17명 작가의 작품사진과 에세이를 담은 〈꽃보다 아름다운 스님들의 도량-사불산 윤필암〉(학고재 刊)도 발간했다.

이은자 기자 elee@buddhapia.com

'열반의 미소를 찾아 천년의 길을 가다'

CD롬 나왔다



불교의 모든 예술품은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를 담은 또다른 부처님의 세계다. 그 중에서도 불상은 아름다운 미소와 성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말 없는 법문을 전하며,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한다.

그 불상의 미소를 화두 삼아, 인도에서 발흥한 불교가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래되기까지의 불법의 길을 펼쳐 보이는 CD롬 '열반의 미소를 찾아 천년의 길을 가다'가 나왔다.

한국·중국불상 등 310점 수록

현대불교·프론트라인 공동제작

'열반의 미소를…'는 현대불교신문사와 주식회사 프론트라인디지탈이 불교문화의 원류를 찾아내고, 불교의 발생과 전래과정에서 비롯된 불교문화의 미술사적 가치 및 종교적 의미를 밝혀내기 위해 기획했다. 지역적, 시대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구현된 불상의 미소를 통해 불교의 세계종교로서의 이념적 보편성을 규명하고, 국내외에 불교의 사상적 가치를 알린다는 것이 '열반의 미소를…' 시디롬의 제작 목적이다.

지난 1998년 11월 한국의 KBS TV와 1999년 일본의 NHK TV에서 방영된 '미소의 원류를 찾아 실크로드를 가다' 다큐멘터리 촬영필름 및 스틸사진을 기반으로 인도, 실크로드, 중국, 한국에 산재한 불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 CD롬에는 한국불상 30점, 중국불상 150점, 서역불상 30점, 인도불상 100점 등 총 310여점의 불상이 동영상과 사진으로 수록돼 있다. 불상외에 관련 유적 사진도 함께 소개된다. 지역별, 목록별로 검색이 가능하며, 불상에 대한 설명은 한글과 영어로 지원된다.

'열반의 미소를…'은 관광공사 국내 안내소, 국내외 각급학교 도서관, 수업교재로 보급될 예정이며, 인터넷 홈페이지 www.buddha2001.org 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이은자 기자

"지역문화 일구기 보탬됐으면…"

전시장 무료 대관 부산 영광갤러리

인터뷰 이경순 관장

"33년 동안 영광도서를 아껴준 부산시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영광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휴식을 제공하는 시민들의 열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산 영광도서 4층에 영광갤러리를 열고, 서점을 찾는 시민들에게 또다른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경순(53 · 옥화장) 관장. 3년전 문을 연 후 사진전을 중심으로 70회에 달하는 전시회를 열며, 대관료는 물론 일체의 경비도 받지 않고 오로지 지역문화의 향상을 위해 애써 왔다. 이관장 자신 또한 사진가로 활동하며 연꽃 사진전을 수차례 가진바 있다.

"모든 것이 무료여서 전시되는 작품은 오히려 더욱 엄격하게 선정하고 있다"는 이관장은 "참신하고 의미있는 기획전이나 역량있는 젊은 예술가들이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고 그간의 보람을 말한다.

오는 6월에도 UFO사진전(6월 5~10)을 비롯해 도열스님의 디지털 만다라전(6월12~17), 경성대 대학원 사진학과 순수사진전공전(6월 18~21) 등 전시가 잇달아 준비중이다. 6월 전시일정이 끝나는 대로 영광갤러리는 한달간의 휴식에 들어간다. 7월 중순 더욱 넓어지고 새로워진 모습으로 문을 열기 위해서다.

"새 모습으로 단장하고, 보다 좋은 기획과 전시로 지역시민을 찾아가겠다"는 이관장은 "불교관련 전시도 적극적으로 유치해 불교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하는데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겨울에는 너무 메말라서 보기에 애처롭던 아카시 나무가 주렁주렁 꽃을 피워내 세상을 하얗게 물들이고 있다. 기다리던 봄비 속의 아카시아나무 숲은 싱그러움이 한층 더하다.

오랜만에 수석전시회에 들렀다. 무심한 돌이지만 무언가 시정(詩情)을 함축한 듯 묘한 정서적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수석을 둘러보노라니, 지난번에 보았던 운주사의 못난이 석불이 떠올랐다. 특정한 형상이 없이 자연 그대로 생겨서 마주 대하는 사람이 느끼는 대로 보이게 된다는 점에서 돌은 서로 닮은 것 같다. 수석은 거울 같아서 보는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비춰주는 것 같다. 돌을 보고 있노라니, 평소 애석가(愛石家)로 이름났던 박두진 시인의 '돌의 노래'가 생각났다.

돌 이어라 나는
종일을 잠잠하는
돌 이어라
(…) 시로도 너를 삼아 말할 수 없고
노래로도 너를 삼아 노래할 수 없고
그냥 보며 그냥
느껴 말을 못하는
(…) 돌꾼 하나
돌을 안고
눈물 머금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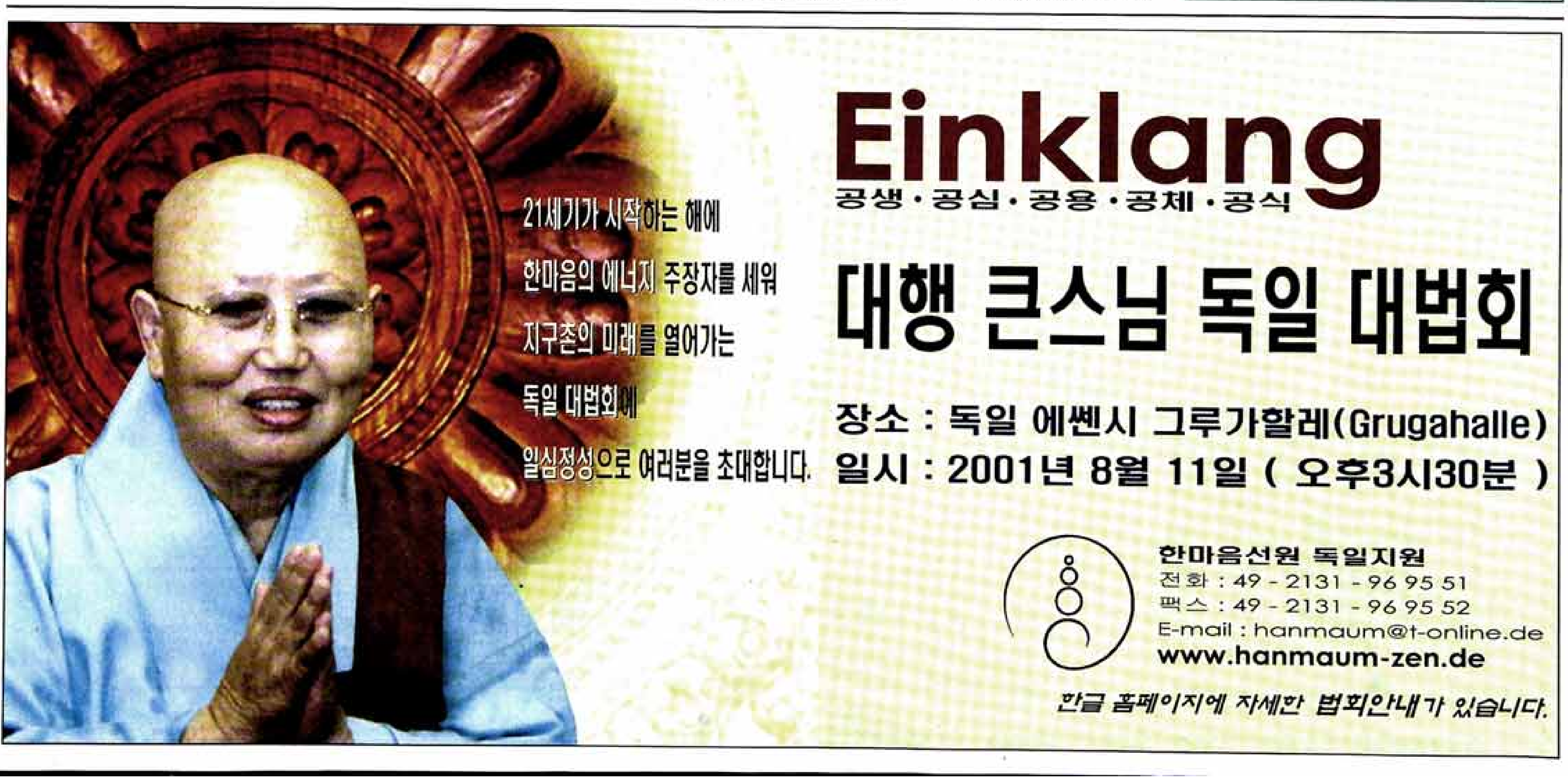
박두진 '돌의 노래'

우주가 응축된 일즉일체의 진리 돌 속에서 보다

박두진이 조지훈, 박목월과 함께 활동했던 '청록파'는 자연의 생명력을 시적 주제로 삼았다. 이들은 돌이 지닌 시원적(始原的) 생명력을 노래했으며, 돌을 통해 근원을 탐색하고 돌 속에서 태초가 손짓하며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바로 피안(彼岸)과의 교감이었다. 돌 속에서 시간을 뛰어넘는 만고(萬古)의 새벽 기운을 느끼며, 돌 속에서 우주가 응축된 일즉일체(一卽一切)의 진리를 보았다. 돌은 '영혼이 깃든 자연'의 상징인 것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그저 돌을 껴안고 눈물 머금는' 그 심정은 어떤 것일까? 지(知)적인 요소인 '말'이 모두 빠져나가고 정(情)적인 요소인 '눈물'만 남는 것은 어떤 경지일까? 사찰에 가보면 그저 열심히 손바닥을 비비며 기도를 하는 할머니를 쉽게 볼 수 있다. 그분들의 신심이 바로 이 경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문자의 바다인 팔만대장경은 몰라도 된다. 한마디라도 귀동냥해서 뜻도 모르고 그저 따라 외우면 족하다. 그래도 그 공덕은 한량이 없는 것이다. 순수한 불심은 장황한 독경(讀經)에 있지 않고, 그저 뜻도 모르는 다라니 주(呪) 한 구절이라도 간절히 외우는 데 있다.

어느 승려가 와서 조주 선사에게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선지식에게 다짜고짜 선(禪)의 궁극적인 의미를 묻다니 어지간히 다급했나 보다. 지적인 문제에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는 정적인 세계를 환기시켜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백전노장인 고불(古佛) 조주는 자상히 일러준다. "뜰 앞의 잣나무."

지식보다 사랑이 높고, 말보다 눈물이 순수하다. 말을 버리고 눈물의 경지에 서자는 것이, '아는' 것을 버리고 '되자'는 것이 교종이나 선종이나 정토종이나 밀교나 모두가 지향하는 바가 아닐까?

■문학평론가